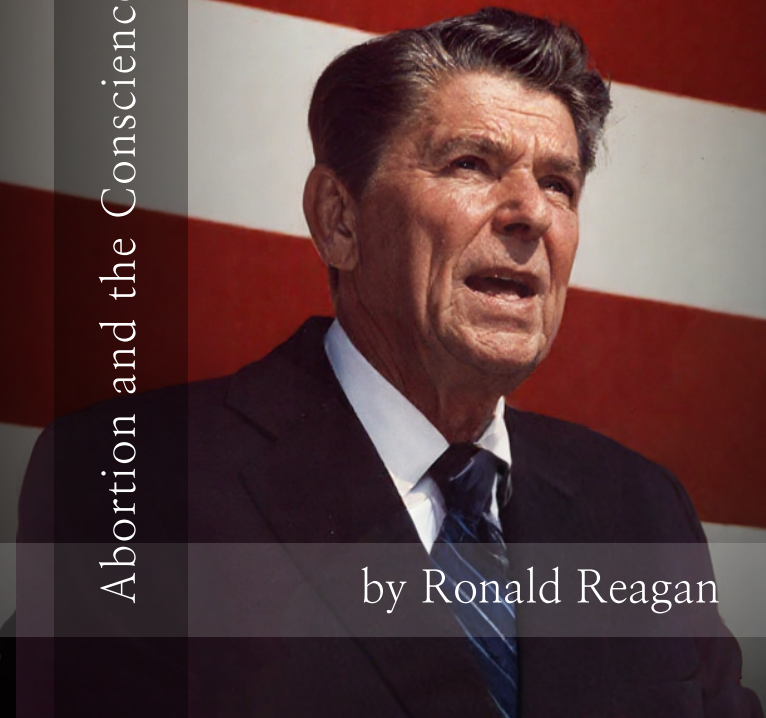


Abortion and the Conscience of the Nation

낙태와 국가의 양심

로널드 레이건 저 | 조평세 역

by Ronald Reagan



낙태와 국가의 양심

Abortion and the Conscience
of the Nation

로널드 레이건 저 | 조평세 역

I 776
INSTITUTE

낙태와 국가의 양심

Abortion and the Conscience of the Nation

발행일 | 2025년 12월 25일

발행인 | 조평세

디자인 | 장미

발행처 | 1776연구소

비매품

“제가 보니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낙태 당하지 않고] 무사히 태어난 사람들이더군요.”

— Ronald Reagan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어났다.*”

—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대한 소수의견



1970년대 초 러셀 사코(Russell Sacco) 의사가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직접 찍어서 공개한 10주 태아의 발바닥

서문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소책자 <낙태와 국가의 양심>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이 1983년에 직접 쓴 소논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레이건은 낙태 합법화 판결 (Roe v. Wade) 10주년을 맞아 *Human Life* 잡지에 이 논문을 기고하고 단행본으로 펴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단행본을 출간한 대통령은 레이건이 유일하지요. 이 글은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현재 6년 이상 낙태 관련 법적 공백을 맞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매우 시기적절한 교훈과 울림을 줍니다.

레이건은 이 책에서,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고는 미국의 자유공화국이 보존될 수 없었던 것처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자유국가로 남을 수 없을 것을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낙태(임신 중절)의 명분은, 임신 유지가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또는 부모가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의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의 낙태는 이미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특수상황은 매우 전체 낙태 사례의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낙태는 소위 ‘경제사회적’ 이유입니다. 결국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 중 가장 어리고 취약한 태아의 생명을 산아제한, 가족계획, 여성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을 명분 삼아 죽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생명경시 풍조는 이 나라의 국가적 양심을 시커멓게 태워놓고 있습니다.

정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사람의 생명권보다 우선할까요? 생명을 죽이는 결정권이요? 여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되려 너무나 여성 편파적입니다. 결정권, 또는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던 태아 생명이 생기는 순간, 즉

성관계를 맺는 단계에서 행사될 권리이지, 이미 뱃속에 다른 인간 생명이 존재하게 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론 여의치 않은 경제사회적 여건, 즉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적절한 보살핌을 못 받아 고통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인다는 변명도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경제사회적”이라는 기준 자체가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지 고통(suffering)을 없애기 위해 고통받는 자(sufferer)를 제거하자는 궤변이기 때문입니다.

낙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결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을 정죄하는 것은 실제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은 이미 자신의 실수에 대해 타인이 비난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으며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낙태를 이미 한 경우에도 물론 평생 그 죄의식과 상처에 괴로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과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입니다. 임신주기별 태아의 신체 및 의식 발달 과정을 널리 알리고, 태중의 아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생명이라는 사실만 명백히 알려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은 마땅히 ‘죽임’이 아닌 ‘살림’을 선택할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 책을 비롯한 많은 ‘프로라이프’ 활동가들의 다양한 노력은 결국 미국인들의 양심을 깨웠고, 마침내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낙태합법화 판결을 만 49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미 6,300만 명이 넘는 태아가 죽임당한 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생명이 무분별하게 희생되기 전에, 국회는 속히 낙태 관련 형법 개정과 태아 생명을 최대한 살리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국회에 주문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 30:19)

낙태와 국가의 양심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제40대 대통령)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내린 지 10주년이 된 지금, 우리는 잠시 길을 멈추고 깊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9개월 중 언제든지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오늘날의 전국적 낙태 실태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것도, 입법부가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한 주(州)도 이런 무제한적인 낙태를 허용한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런 만행을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결과는 너무도 처참합니다. 1973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1,500만 명이 넘는 태아가 합법적 낙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터에서 잃은 생명보다 10배가 넘습니다.

우리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처럼 ‘원하는 대로 가능한 낙태(abortion-on-demand)’는 결코 우리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진지한 헌법학자도, 설령 10년 전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헌법제정자들이 이런 권리를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직후, 스탠퍼드 로스쿨 학장 존 하트 엘리(John Hart Ely) 교수는 “이 판결은 헌법적이지도 않고, 헌법적으려는 어떤 의무감조차 느낄 수 없다”고 썼습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아이를 출산되기 직전까지 죽일 수 있다는 ‘권리’를 암시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가공의 사법권”(raw judicial power, 소수 의견을 낸 화이트 대법관의 표현)에 따라 7명의 다수 대법관이 내린 판결은 10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계속해서 이 나라의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낙태는 단지 태아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국 시인 존 던(John Dunne)은 “어떤 인간의 죽음이라도 나를 줄어들게 한다. 나는 인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묻지 마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인간 생명의 한 범주, 즉 태아의 가치를 낮추려 한다면, 그것은 모든 인간 생명의 가치도 함께 낮추는 것입니다. 작년 인디애나주 법원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베이비 도(Baby Doe)’가 태어났을 때 곧바로 굶겨 죽이도록 허락한 것도 그 슬픈 예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희생된 생명에 대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건강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마거릿 헤클러(Margaret Heckler)도 낙태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도덕적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을 지켜주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낙태의 일반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행정부 첫 2년 간 의회에서 낙태 반대를 위해 싸우는 의원들과 시민들을 가까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전국적 낙태 합법화를 지키려는 거대한 세력도 목격했습니다.

난관은 있지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며 국민을 분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 노예제를 합법화한

1857년 드레드 스콧(Dredd Scott v. Sandford) 판결도 하루, 1년, 10년 만에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소수의 미국인만이 흑인 형제자매들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이 판결의 부도덕성을 인식했지만, 결국 그 소수의 집요한 노력 끝에 우리나라라는 노예제를 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 국민들의 양심에 호소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진리에 호소했습니다. 이 노예해방의 역사는 우리 미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리고 결코 영원히 억눌려 있지 않을 인간 생명의 신성한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태아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미국인 대다수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노예제가 그러했듯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도덕적 위기의식이 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되고 충분히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낙태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낙태를 얘기할 때 우리는 두 명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입니다. 임신한 여성을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혹여나 누구라도 두 번째(태아의) 생명이 과연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쪽으로 가능성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신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면, 그 신체를 어느 누가 함부로 땅에 묻을 수 있습니까? 이 고려만으로도 우리는 태아 생명의 보호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현대 의학도 태아의 인간 생명성과 그것이 수반하는 도덕적 의무감을 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현대 의학은 태아를 환자로 여깁니다. 오늘날의 현대 의학은 태아의 심장박동, 유전자, 비타민 결핍, 부정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처치를 할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태어나기 전 9주 동안 무려 6번의 뇌수술을 한 태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통을 느낄 줄도 아는 이 태아를 환자로 여기고 보살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환자 이겠습니까? 의사가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메스(칼)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한 명의 작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묻는 핵심 질문은 사실 인간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입니다. 낙태시술자가 산모의 몸에 ‘잔여물’이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뜯어낸 태아의 팔다리를 조립하여 볼 때, 그는 그것이 실제 사람이었음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작은 생명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천부인권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인디애나주의 ‘베이비 도’ 사건은 진짜 쟁점이 무엇인지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운증후군 신생아에 대해 법원은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굶주려 죽여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이유는, 그 아이가 부인할 여지없이 살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적 쟁점은 이 아이의 인간 여부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이 지체장애아의 살아남을 가치 여부였습니다. 의사는 법정에서 이 아이의 장애가 사실상 사형수의 범죄와 동일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아이를 굶겨 죽이는 것을 허락했고, 주 대법원은 그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연방법은 다운증후군 신생아를 굶겨 죽이는 것은 물론, 치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법무부와 보건 복지부 명령을 통해, 전국의 연방 병원이 장애가 있는 신생아에 대해서 모든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고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주기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이 장애아의 생명을 가치 있게 보호하며, 그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1981년 상원에서 연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의료인들과 과학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태아가 살아있는 고유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 만큼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견은 그 가장 연약한 인간 초기 존재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의 여부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중 일부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같은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의 사람만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의식이 있는 사람만 인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섬뜩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갓 태어난 아기라도 아직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노벨상을 받은 저명한 어느 과학자는 “장애아의 출생 3일 뒤에도 인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부모는 [아이를 죽일 지 살릴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인간 우생학적 ‘품종관리’ 개념이 도입된 셈입니다. 이는 영향력 있는 일부가 인간 생명의 내재된 신성한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됨’의 자격 기준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내려지기 3년 전 어느 캘리포니아 의학지는 낙태의 사회적 수용은 “인간 생명의 단계나 상태나 지위와 상관없이 그 내재적이고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는 서구의 도덕윤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입법자와 의료인, 그리고 시민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진정한 문제, 즉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인간만 살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살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는 가공할 사회윤리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한 국가공동체로서, ‘생명의 존엄성 (sanctity of life) 윤리’와 ‘삶의 질(quality of life) 윤리’ 중 무엇을 선택할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답은 항상 자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미국의 기초는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는 우리의 독립선언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우리는 미국 내 흑인이라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창조주가 부여한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끔찍한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당시 생명 존엄의 위대한 수호자였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 위대한 문서를 작성한 국부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섭리에 대해 그들이 내린 장엄한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정의에 대한 그들의 고상하고 현명하며 숭고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의는 온 인류, 즉 창조주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 존재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어떤 존재도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모든 인류뿐 아니라 먼 미래의 후손들까지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손과 그 자손, 더 나아가 여러 시대를 거쳐 이 땅에 살게 될 무수한 인류를 인도할 등대를 세웠습니다.”

링컨은 또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보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원칙에 어떤 예외를 둔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예외를 허용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은 흑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이 다른 어떤 인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존 빙엄(John A. Bingham) 의원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 자유 및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14조 수정헌법을 쓰면서, “신성한 평등의 정신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미국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윌리엄 브레넌(William Brennan) 대법관으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리기 1년 전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우리 사회를 “생명의 존엄성을 강력히 확인하는 사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윌리엄 브레넌은, ‘생명의 존엄성’ 윤리를 거부할 때 따라오는 끔찍한 결과를 상기시켰습니다. 한 사회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그 존엄한 가치를 부정했을 때 인류가 겪은, 바로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의식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생명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은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살아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조차 모든 인간 생명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문제를 회피했을 뿐입니다.

의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중 가장 연약하고 어린 생명도 사람으로 인정하고 헌법상 인격으로 보호하는 ‘인간생명법’ 등 여러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시 헬름스(Jesse Helms)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1981년 상원의 청문회를 통해 낙태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얼마전 98대 의회에서 발의한 ‘인간생명 존중법’은 첫 문단에서 미국 정부가 “태어나기 전과 후의 모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헨리 하이드(Henry Hyde)와 로저 켈슨(Roger Jenson)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 정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나 낙태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낙태 허용이 가능하게 하는 영아살해 문제도 긴급히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안들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이라는 더 힘겨운 방법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대법원이 10년 전 도입한 낙태 허용 판결을 뒤집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나라가 다시금 확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의사들은 태아가 촉각을 느끼고 고통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허용되는 잔혹한 낙태 시술의 실태를 알지 못합니다.

두 해 전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일요특집으로 ‘끔찍한 합병증(Dreaded Complication)’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끔찍한 합병증이란, 태아가 낙태 과정의 모든 고통스러운 난도질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산모 밖으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낙태시술사들이 가장 끔찍해하는 경우이지요. 대법원이 허용하고 있는 만삭 낙태는 이러한 경우를 종종 발생시킵니다. 이 신생아들은 우리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아남은 아기들이 결국 죽음당할 때,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만삭 낙태 중 아기가 살아서 나왔을 경우 결국

굶겨 죽이거나 질식사시켜 죽여야 하는 상황을 통해, 우리는 낙태가 영아살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만행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특별한 필요에 민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이유로 신생아를 죽이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외과 수술 기술을 개척하고, 그들 생명의 가치를 옹호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C. 에버렛 쿵(Everett Koop) 박사를 공중보건국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의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 중 어느 누구도 ‘삶의 질’ 윤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우리 미국인들이 이 영아살해의 문제를 비롯한 낙태의 모든 사실들을 가감 없이 직시한다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기도 우리 모두와 같은 내재적 가치와 생명권, 그리고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년 전 뉴저지 대법원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판결했듯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아이가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국 작가 맬컴 머저리지(Malcolm Muggeridge)가

핵심을 꼭 짚어주었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신성하거나, 아니면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신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가치한, 그런 중간 지대는 없다.”

우리 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무고한 생명이 존엄하다고 하는 불변의 원칙을 선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낙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의 흑백 분리 판결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이 뒤집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다시 생명의 존엄성 윤리와 삶의 질 윤리라는 선택지로 놓고 고려한다면, 이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낙태만이 해결책이 아닌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라이프(낙태 반대)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미혼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종종 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영웅적인 행보를 이미 보여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빅토리아라는 젊은 임산부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래를 구하고, 늑대와 흰머리 독수리, 그리고 콜라병까지도 보존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 아기는 버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델러스에 있는 Sav-a-Life라는 단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Sav-a-Life는 미혼모들이 낙태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품고 있는 인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코츠빌에 있는 ‘하우스 오브 히스 크리에이션(House of His Creation)’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200명의 젊은 미혼모를 받아들여 보살핀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소녀들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그들에게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또한 코네티컷주 엘링턴의 경이로운 로소우(Rossow) 가족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9명의 장애아동을 입양 또는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제레미아 덴튼(Jeremiah Denton) 상원의원의 발의로 의회가 채택한 ‘청소년 가족생활 프로그램’은 미혼모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존 파월(John Powell)이 그의 저서 『낙태: 조용한 홀로코스트』에서 원치 않은 임신한 한 여성들에게 한 다음의 말을 우리 사회 모든 일원이 말할 때까지 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당신 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삶으로 신앙을 살아냈던
테레사 수녀의 말을 직접 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어린아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미국에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이를
입양하려는 가정이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아이(wanted child)여야만 한다”
라는 낙태론자들의 공허한 슬로건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해야만 태어날 수 있다는 끔찍한 공식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종종 말해왔습니다. 기도와 행동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기도 없이 결코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는 영향력
있는 친구들로 구성된 클레팸 공동체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윌버포스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믿었기에 의회에서

그 투쟁을 흔들림 없이 이끌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영국 의회는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월버포스의 믿음과 인내가 우리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의 생명의 진정한 가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맬컴 머저리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꺼질 듯 흔들리든 혹은 맹렬하게 타오르든, 그것은 여전히 신성한 불꽃이기에 그 누구도 감히 끌 수 없습니다. 그의 동기가 아무리 인간적이고 계몽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노예로 부릴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국가로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나 영아살해를 허용한다면, 우리는 자유국가로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미국을 자유공화국으로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자유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의 초월적인 생명권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의는 없습니다. 이 생명의 권리 없이는 다른 어떤 인간 권리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image is a close-up, slightly angled view of the American flag. The stars are visible in the upper left, and the stripes are visible on the right and bottom. The colors are muted, with a dark blue for the stars and a dark red for the stripes.

1776
INSTITUTE

LEARN MORE AT
www.1776.or.kr